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수) 9월 16일, (수) 9월 23일 ~ (수) 10월 15일

2020년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가까이

1-2020-순례리



YWCA 여성평화기도문

주님께서 세우신 YWCA가
100주년을 향해 10만 회원이
여성평화순례를 합니다.

주님이 앞서 걷는 통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오만과 편견을 벗으렵니다.

색동조각보의 다채로움
북녘 땅에도 이어지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렵니다.

주님과의 사귀이 사랑이 되어
모든 다른 이에게

한라에서 백두에 가득 찬 성령의 기운이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창조질서의 보전을 평화로 일구어내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노래

조각보

- 1절 -

한 조각 또 한 조각 만든 조각보
그 옛날 생명의 숨 다시 열리네
높고 어두운 슬픔의 벽을
무지개 사랑으로 살려내리라

- 2절 -

우리가 함께 걷는 발걸음마다
온 세계 울려 퍼진 평화의 소식
색동 조각보 하늘 감싸니
어울려 사는 삶을 살아가리라
어울려 사는 삶을 살아가리라

2020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일정

1. 홀로 걷는 평화 순례

9월 16일(수) - 9월 23일(수)
'나의 평화기도문' 과 걷기 참여 기록을
기입한 <걷기 인증샷> 보내기

2. 함께 이어가는 순례의 길

10월 15일(목) 오후2시, 온라인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및 기 전달식

3. 온라인 평화 사진전

11월 한 달간 전시

* YWCA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피스첼린지 서명 참여하기
<https://endthekoreanwar.net>
(서명시, 꼭 '한마디' 란에 "YWCA" 를 표기해주세요)

2020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묵상 말씀

묵상말씀1.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묵상말씀2.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묵상말씀3.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목 적

- 한국YWCA 100주년을 향한 평화 비전 수립, 여성의 평화운동 확산
- 여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 확산 및 평화 감수성 향상
-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 이해를 통한 화해 기반 조성
- 북한·중국·미주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여성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새 지평 마련



2020년도 주제

상처 치유와 회복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갈등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며 일상의 순례길을 통한 평화의 일꾼으로서 결단과 의지를 다지고자 함.

2020년도 주관

광주YWCA · 한국YWCA연합회

후원: 행정안전부

2020년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순례단

강둘아 강류안 강명순 고혜정 곽옥선 곽효정 구정혜
금후자 김경하 김경희 김광희 김귀정 김명희 김미선
김미정 김민경 김민숙 김민주 김선아 김신애 김영숙
김예은 김오복 김옥경 김유미 김윤경 김은영 김정아
김지인 김춘화 김태진 김혜숙 남궁혜경 남다원 노은미
마정심 박경진 박성실 박연희 박영희 박현숙 방정원
백수미 백용애 서성심 성인순 송순이 신기숙 신은경
신재화 신현아 안미리 안소진 엄금자 여진경 오영란
옥은정 이경애 이경자 이경희 이귀선 이길화 이 레
이리자 이선미 이성애 이수진 이수진 이영숙 이영순
이예림 이예림 이윤숙 이정선 이정희 이주영A 이주영B
이지운 이현순 이희경 장수빈 장은정 전윤진 전희영
정명혜 정미숙 정선덕 정수경 정은영 조은숙 조입분
차경희 최윤정 한영란 함정실 황기숙 황상선 황성연
총98명

* 그 외 일반순례자 명단은 별도로 기록 예정

2020 YWCA 여성평화선언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에 참혹한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깊은 갈등과 증오를 낳았고, 한반도를 대결과 분리의 질서 속에 가두어놓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자주적인 해결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문은 닫혀있으며 반목과 오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깊은 상처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입니다. 분단 체제에서 고통과 희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대적 분열과 혐오의 확산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력 순환을 단절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참회와 용서를 통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한 번의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더불어 만들어감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몸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화해자가 되신 예수의 삶을 따라, 한반도의 깊은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 평화를 향한 변화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오래된 가치의 소중함을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관계성을 통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변혁적 전환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 상생과 공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은,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개인과 전 사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변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자 합니다.

한국YWCA는 새로운 100년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변혁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상처와 고통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동참한다.
1.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행동에 연대한다.

2020년 10월 15일

(2020년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례자 일동)